

‘우리 손으로 앞당긴 사무자동화’

-명필의 개발-

이기식, 정왕호

1. 개요

1983년 늦가을, 시청 앞 분수가 을씨년스럽게 바라 보이던 프라자호텔에서는 ‘명필’의 탄생을 알리는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그 당시로서는 익숙하지 않던 제품발표회라는 모임의 성격과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워드프로세서’라는 낯선 제품이었음에도,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발표회를 준비하였던 고려시스템 측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의 성황을 이루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워드프로세서의 원조격인 ‘명필’은, 82년도 과학기술처 특정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되었던 ‘보급형 워드프로세서 개발’의 산업체 위탁 과제로서 계속 진행되었던 ‘명필Ⅱ의 개발’을 통하여, 당시 명칭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의 1그룹 소속 연구원들의 노고와 지금은 없는 컴퓨터 전문업체인 고려시스템의 노력으로 탄생되었다.

2. 배경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전신인 전산개발센터의 1그룹은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기본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 개발을 목표로 현재 대우증권의 전무인 이기식 박사를 그룹장으로 섭어

명의 연구 인력이 '가난한' 살림살이를 면치 못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소장을 맡고 계시던 성기수 박사로부터는 꽤나 인정을 받는 연구팀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구과제의 개발을 위탁하려는 산업체는 찾기 어려웠고, 과학기술처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제안서도 많이 작성해 보았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밥벌이도 변변이 못하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동(同) 연구팀은 일본 후지쓰의 위탁 과제였던 '한글 CRT, 프린터의 개발'과 KAIST 자체 프로젝트였던 '소프트웨어 이식 시스템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한글 문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 한, 기본 소프트웨어 분야의 실용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할 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점을 성 박사는 인정해 주셨다.

1981년~1982년 과학기술처의 의뢰로 동(同) 연구팀에서 수행된 '컴퓨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는 투입 예상 인건비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연구비용이 배정되었으며 그 결과도 모든 이해 당사자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일 것이 명백한 '재미없는' 연구과제였다.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그것도 한시 바빠 정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조하시던 성기수 박사의 적극적인 독려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동(同) 연구의 결과인 표준화 시안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되었으며 예상했던 대로 많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무책임한 비난도 받았다. 당시 동(同) 과제수행에 참여하였던 정왕호 선임연구원은, 물론 그것만이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제정된 표준안을 그대로 채용한 제품을 만들어 문제점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뜻을 갖고 기업체로 직장을 옮겼다.

3. '명필'의 탄생과 발전

당시 정왕호 선임연구원이 옮겨 간 고려시스템은 한국화약그룹의 계열사로서 종업원 100여명 규모인 작은 업체였으나, 다행히 컴퓨터 전문업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분이 경영을 맡고 있었다.

연구개발 조직도 채 갖추어지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첫번째로 추진한 업무는 한글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입출력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투자를 유도해내

는 일이었다. 당시 동사(同社)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성에 대한 확신 없이 적지 않은 개발비 부담에 대한 승락을 얻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현 시점에서 회고해 보면, 오히려 앞뒤를 가려서 추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기식 박사를 만나 상의를 하던 중,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개발 과제로의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당시 안면이 있던 과학기술처의 몇몇 분들을 찾아가 남은 예산이 있는지를 수소문하는 등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새롭다.

특정 연구과제도 신청만 하면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정부출연' 분을 제외한 '기업체 부담금' 분은 어떻게 회사측을 움직여야 할 것인가. 생각 끝에 사장을 모시고 성 박사를 찾아 뵈었다. 미리 각본을 짜거나 하는 등의 아무런 준비도 없었으나, 간단한 설명만으로 상황을 파악하신 성 박사께서는 그저 몇 마디만으로 효과 만점의 세일즈에 성공하셨다. "만들어만 내면 파는 것은 책임지겠다"고 장담을 하셨던 것이다. 여하튼 그날 이후 회사측을 움직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당당히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과제로 선정되어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여건으로는 개발 목표의 세부 기능을 정의하는 것조차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즉 '사용이 편리한 보급형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으나, 과연 어떤 기능을 갖추는 것이 사용이 편리한 것인지 비교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명필'의 개발에 착수할 시점에 워드프로세싱 소프트웨어라고는 영문 전용의 '워드스타'가 있었고,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그룹에서 개발된 '워드 80'이라는 시제품 수준의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용법을 익혀 자유롭게 쓸 수 있기까지는 여간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이 편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급형' 이어야 한다는 전제였는데 당시 '명필'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과 유사한 Z80을 CPU로 채택한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의 가격이 700만원대로서 포니 자동차 현대 값이었으니 아무리 사무자동화도 좋지만 도저히 '보급형'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일본형의 워드프로세서의 전용기 개발로 방침을 정하고, 기능 참조용으로 일본 후지쓰의 '오아시스'라는 기종을 현대 구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어 전용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는 절차 또한 쉬운 것이 아니어서 매뉴얼만을 먼저 구해서 개략적인 기능 정의에

참조하였을 뿐이었다. 본체는 '명필'의 개발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개발 팀의 손에 넘겨 질 수 있었지만…….

제품의 가격을 200만원 대로 낮추느라고, 수출용으로 생산중이던 CRT의 머리에 생산 중단된 금전등록기의 금형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본체로 구성된 우스꽝스런 '명필'이 탄생된 것은 개발에 착수한 지 10여 개월이 지난 후였다. 어떠한 프로젝트나 그렇겠지만 개발에 참여한 연구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첫번째 사용자는 영광스럽게도 청와대 비서실이었으며,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초기 모델치고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 일기 시작한 정부기관의 사무자동화 추진 움직임에 힘입어 몇 대씩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무렵, 국내 시장에 또 다른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큐닉스의 '한글 마당'이라는 제품이었다. '한글 마당'은 '워드스타'처럼 명령어를 문장 중간에 입력하는 형식의 워드프로세서였는데 상당 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메뉴 선택방식으로 사용하기 쉬운 '명필'과는 다른 수요층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나 워낙 좁았던 당시의 시장 형편상 곳곳에서 경쟁이 벌어졌다.

실제로 워드프로세서의 필수적인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자의 크기, 각종 어트리뷰트(attribute) 표현 등 출력 기능의 경쟁으로 고품질 프린터가 요구됨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의 프린터 업체만 즐겁게 해준 면도 없지 않았지만, 경쟁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노력은 훨씬 흥미있는 것이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명필'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큐닉스였던 것이다.

'명필'은 그 이후 1그룹과 두번째의 연구 용역을 통하여 한자 지원이 가능했던 '명필Ⅱ'의 개발로 그 기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으며, 연이은 '명필Ⅲ' 모델과 '명필Ⅳ' 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워드프로세서 사용환경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同) 제품 자체만으로서의 채산성은 국내 시장 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IBM PC 호환기종의 국내 시장 확산에 맞추어 PC용 소프트웨어로서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픽 작성기능을 포함한 '슈퍼 명필' 개발을 위하여 또 한 차례 1그룹과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유대 관계를 맺고 후속 모델의 개발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프로젝트도 흔치는 않을 것이다.

4. 맺는 말

‘명필’은 우리나라 컴퓨터 역사의 유물로 독립기념관 한쪽에 전시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고, 과학기술치가 수행한 특정연구 개발과제 중 대표적인 성공과제로 평가되기도 했으며, 80년대 중반 한때는 ‘워드프로세서’는 잘 모르지만 ‘명필’은 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에게 큰 보람을 갖게 해 준 연구 개발이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품개발의 동기 제공 역할을 하였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양이 보급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무자동화 촉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개발센터’ 명칭을 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연구개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며, ‘명필’의 판매 증대에 대한 조언도 서슴지 않으셨던 성기수 박사님의 의지는 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사무실에서 누구나 불편없이 여러 가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